



# 강지원\_자기소개서

---



“길이란 걷는 것이 아니라, 걸으면서 나아가는 것이다.”

- 드라마 「미생」 1화 中

제가 가장 인상깊게 본 드라마에 나오는 대사입니다.  
주어진 길을 수동적으로 걷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때로는 치열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삶의 자세를 의미합니다.

저 또한 아무런 고민 없이 그저 이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주도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 Q. 간단하게 자신을 소개해주세요!

---

### ▼ 안녕하세요, 데이터 분석가 강지원입니다!

학부 전공 강의로 데이터에 흥미를 갖게 되어 졸업 후 꾸준히 프로젝트 경험을 쌓았고,  
현재 컨설팅 회사에 근무하며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으로 팀 업무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Python, R, SQL 등으로 데이터를 다루는 일에 흥미가 있고,  
Streamlit(Python), Tableau 등 데이터 시각화 및 대시보드 개발 역량도 있습니다.  
Excel, PPT 등 MS Office 도구나 Github, Notion 등의 협업 도구 사용에도 익숙하며,  
백엔드(Java, Springboot 기반) 및 프론트엔드(Html, CSS 기반) 개발 경험도 있습니다.

데이터를 '21세기의 석유'에 빗대어 표현하는 것이 다소 식상할 수는 있습니다만,  
석유는 원유 그 자체보다 잘 정제되었을때 비로소 가치가 드러나듯  
데이터도 잘 정제하고 가공하여야 진짜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는 생각은 여전합니다.  
그동안 쌓은 전공 지식과 다양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데이터의 숨은 가치를 발견하여  
사람을 이해하고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데에 이바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Q. 성장과정이 궁금해요!

### ▼ 물음표 살인마가 된 이유

어린 시절부터 저는 항상 질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초등학생 때는 반에서 질문을 가장 많이 하는 아이로 유명했고, 이후 학창 시절을 보내면서도 배운 개념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왜’라는 물음표를 던지고 스스로 답을 찾아가곤 했습니다. 고등학교 수학 수업 시간에 선생님의 문제 풀이에 의문을 제기하고 더 창의적인 풀이를 선보인 후 반 친구들에게 박수를 받고 느꼈던 뿌듯함은 아직도 강렬하게 남아있습니다.

대학교에 진학하고 다양한 사람을 만나면서 저는 사람들을 이해하고자 했고, 자연스럽게 사회 현상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던 중 통계라는 도구에 흥미를 가지게 되었고, 실제로 이중 전공으로 통계학을 선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항상 물음표를 던지는 이유는,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바꿔 말하면 모든 결과는 곧 또 다른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답을 찾아나가는 태도는 타인을 이해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합니다. 저는 그 답이 데이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데이터 분석가로서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데이터를 통해 답을 찾아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 Q. 어떤 장단점을 가진 사람인가요?

### ▼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저의 장점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도 당황하지 않고 의연하게 대처해 나가는 침착함입니다. 평소 크게 일희일비하지 않는 덩덤한 성격으로, 실제 업무 현장에서도 이러한 성격이 문제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일례로, 취준생을 위한 커뮤니티를 개발하는 팀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중에 개인 사정으로 갑작스럽게 이탈한 팀원의 업무 공백을 침착하게 해결하였습니다. 당시 마감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고 각자 맡은 일이 이미 많은 상황이라 해당 공백이 더 치명적이었는데, 당황하는 다른 팀원들과 달리 저는 침착하게 업무의 진행 상황부터 인수인계 받았습니다. 남은 기간 내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빠르게 파악했고, 다른 팀원들에게도 적절하게 업무를 분배하였습니다. 전혀 공부한 적 없는 내용이었지만 여러 참고자료와 이탈한 팀원이 작성해둔 코드를 차근차근 이해하면서 남은 업무를 진행했고, 그 결과 마감 기한 내에 무사히 프로젝트를 끝낼 수 있었습니다. 해당 교육 과정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성과를 인정받으면서 침착하게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것의 중요성을 여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 ▼ 목표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저는 목표가 없으면 다소 느슨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학창 시절에도 학기 내내 열심히 공부하다가도 방학이 되면 얼마 못 가서 풀어지곤 했습니다. 주어진 일이나 명확한 목표가 있을 때는 성실하게 시간을 보내지만, 그렇지 않을 때 흘려보낸 시간들이 저에게 아쉬움으로 남아있습니다.

이러한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깨달은 바로는, 너무 추상적이거나 장기적인 계획보다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단기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휴대폰 메모 앱을 활용하여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할 일을 구분하고 매일 To-Do 리스트를 작성하면서 보다 생산적으로 시간을 사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Q. 가장 뿌듯했던 성공 경험이 있나요?

### ▼ 나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은 도전

취준생을 위한 커뮤니티를 개발하는 팀 프로젝트에서 아무도 시도하지 않은 서버 배포를 혼자 힘으로 성공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당초 계획은 서비스 개발 단계까지였고, 로컬 서버에서 서비스가 의도대로 잘 돌아가는 것을 확인하고 팀 프로젝트는 이미 끝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오라클 클라우드를 통한 서버 배포에 도전했습니다.

사실 서버 배포 단계는 해당 교육 과정에 포함되지 않아 전혀 배우지 않았고, 다른 팀은 물론 같은 팀원들도 전혀 시도해보지 않았던 목표였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도전했던 이유는 충분히 달성 가능한 목표에 도달하는 것만으로는 저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당시 저에게는 굉장히 도전적인 과제였고, 주변 사람들도 ‘굳이 왜 해?’, ‘안 될 것 같은데’, ‘그냥 포기해’와 같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럴수록 오기가 생겨서 더 몰두했고, 여러 번의 실패를 거듭한 끝에 결국 서버 배포에 성공했습니다.

저 스스로를 한계 짓지 않고 과감하게 도전했고, 마침내 목표를 달성했을 때는 그 어떤 성취보다 뿌듯했습니다. 저는 이 경험을 통해 한 단계 더 성장하게 되었고 앞으로 마주할 어려움에도 도전할 수 있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